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통신교리 - 전화문의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 자선주일

정체를 드러낸 천사 라파엘은  
 토빗과 그의 아들 토비아에게 말했습니다. (토빗 12.8)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제 1독서] 이사61,1-2ㄱ,10-11  
 [화답송] 루카1,46-48,49-50,53-54(이사61,10ㄱ 참조)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굵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제 2독서] 1대살5,16-24  
 [복음 환호송] 이사61,1참조(루카4,18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요한1,6-8,19-28

성가	8시 미사	입당 89	봉헌 215 41	성체 151 168	파견 37
	11시 미사	입당 89	봉헌 215 41	성체 151 168	파견 37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대림 제 3주일(12월 14일)		대림 제 4주일(12월 21일)		성탄 전야 밤미사(12월 24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밤 8시
미사해설	임승원루카	3구역:김미숙말가리다	정애리스텔라	4구역:권창모미카엘	조선덕레지나
제 1 독서	최환준베네딕토	3구역:이건호요한	정일환프란치스코	4구역:허순구라우렌시오	강신희요한
제 2 독서	최수영베네딕타	3구역:문아영유스티나	정영희글라라	4구역:허옥진파비올라	김영선안젤라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구분	성탄 미사(12월 25일)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12월 28일)		송년미사(12월 31일)
	오전 11시		8시미사	교중미사	저녁 8시
미사해설	임승원루카	김휘안토니오	뜨락회	전진영베로니카	
제 1 독서	채성일토마스	채성일토마스	뜨락회	심대규미카엘	
제 2 독서	정애리스텔라	정애리스텔라	뜨락회	심승화헬레나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석공과 황홀한 독대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다. 석공은 많은 땀을 흘리며 비석을 깎고 다듬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석에 명문을 각인했다. 그 과정을 한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작업을 마무리 짓던 석공에게 다가가 “나도 똑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소. 그리고 돌에 명문이 새겨지듯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 나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석공이 대답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세례자는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빛이 아니요, 다만 빛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 했다(요한 1, 8). 요한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다. 자신은 오시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마르 7, 8)이며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요한 3, 30) 말할 정도로 겸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고 (마태 11, 11) 말씀하셨다.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은 이제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복음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까…….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체험해야 한다. 그리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하여 모든 이를 믿게 하여야 한다.(요한 1, 7) (빛-체험-고백-증언)

많은 분이 ‘신부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묻곤 하는데 나는 서슴없이 요한복음 1장 7~8절과 서간들을 인용하여 설명하곤 한다.

‘하느님을 만나시고 만나신 그분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내용을 이웃에게 증언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선교입니다.’

그 체험은 짜릿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영험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 체험은 주님의 은밀하고도 황홀한 독대입니다.

그 기쁨의 한 방울만이라도 맛보십시오. 신앙은 바로 그 곳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체험할 수 없으면 고백할 수 없고, 진정한 자기 고백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삶의 자세는 더 낮은 고요로 돌아가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고요한 호수 위에는 무엇이든 가장 높은 물체가 가장 낮게 비치는(반영)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이 저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낮은 고요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것이요, 바로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만남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될 것이요, 우리는 기뻐 뛰놀며 만방에 그분을 선포할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요한 세례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겸손한 증거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우리는 세속에서 변영하는 자신인가, 아니면 고요 속에 기도하는 자신인가…….’

임현택 안드레아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 생명의 말씀

간경화로 위독한 상태에 빠진 아버지에게 두 딸이 동시에 간을 기증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간 기증 의사를 밝혔으나 혈액형이 맞지 않아 이식할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큰딸은 동생보다 자신이 당연히 간 이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사를 받았지만 지방간으로 판정돼 간 기증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둘째 딸이 검사를 받았습니 다. 천만 다행으로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평소 앓던 빈혈이 악화되면서 1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사이 둘째 딸에게 의사는 “간 크기가 너무 작아 혼자서는 안 된다.” 고 이식 수술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의 지방간 증세가 호전되어 두 자매가 동시에 간 일부를 아버지에게 이식하는 2대 1, 간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입니다. 자선 주일의 의미는 가난한 이와 병든 이, 소외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구체적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자선이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한껏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자선의 나눔은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떼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태 10,42)

우리는 기쁘면 나누게 됩니다. 세상에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장애인이 자신이 받는 고통으로 세상에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을 기도로 승화시켜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선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다그칩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요한 1,23)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선행위야말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회개의 표시가 되며, 또한 주님을 받아들이는 최상의 준비가 됩니다.

자선이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참된 연민의 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웃은 항상 우리 손이 닿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허영엽 신부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말씀의 향기

‘미녀는 괴로워’ 와 김아중(믿는다는 것)

영화 ‘미녀는 괴로워’ 를 만들고 영화계 동료와 언론, 평단으로부터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여배우를 수혈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완전 신인이었던 여배우 ‘김아중’ 을 주연으로 발탁해서 영화가 나름 성공을 거두었기에 받은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찬사를 받을 때마다 쥐구멍 속으로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 처음부터 김아중 씨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명 여배우들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려고 접촉했지만, 많은 배우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미모가 출중한 배우들이 못생기고 뚱뚱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당시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김아중 씨를 만났고, 수많은 미팅을 통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서는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이 선택이 옳은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김아중 씨를 캐스팅하고 영화 투자, 배급 관계자로부터 “니가 아주 영화계를 떠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번 영화가 너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구나.” 라는 비아냥 어린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능성을 발견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배우를 바꿔야 하나. 정말 이러다가 영화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기운이 빠져있던 저에게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감독이 찾아와서는 “대표님, 우리 서로서로 믿음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려는 우리가 서로를 믿음시다.” 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이후 전 자신감을 되찾고 많은 동료들과 ‘미녀는 괴로워’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가장 노심초사했던 여배우 김아중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릴 때, 그녀를 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고, 당신을 우리 또한 믿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하다.” 라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요즈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건지 회의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명징한 생각이 저를 곧추세웁니다.

믿는다는 것, 그저 믿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하게 된 내 마음을 느꼈고, 내 가슴이 움직였고, 내가 행동했다면, 그 다음은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를, 주님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천주교인으로서 모자라고 또 모자라지만, 단하나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 하나만 새깁니다.

원동연 제네시오  
리얼라이즈픽쳐스(주) 대표



오소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오소서.  
열정과 감정과 심성을 꺾꽂으소서.  
당신이 오시어 사랑으로 보듬고 밝혀주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글\_헨리 나웬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제1594호 대림 제 3주일 2014년 12월 14일  
베드로의 첫째 서간, 둘째 서간

교회 안팎에서 밀려드는 도전과 위협에 맞서

초대 그리스도교는 교회 안팎의 도전에 맞서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이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서가 교회 바깥에서 다가오는 도전, 곧 세상살이의 위협을 다룬다면, 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을 다룹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세계에서 나그네살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교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그들에게 고통 중에도 희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좋은 행실을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곧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1베드 1, 15) 또는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1베드 2, 12) 바른 행실만이 그들을 악인으로 고발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1베드 2, 15; 3, 16)

저자가 말하는 바른 행실에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고통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본보기로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과(1베드 2, 21)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하느님께서 당신 집의 모퉁잇돌로 선택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버림받겠지만 하느님 집을 세울 돌로 쓰이라고 강변합니다. (1베드 2, 4-10)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고통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도 나누어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베드 1, 3-13; 3, 14; 4, 12-14; 5, 1)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 은총으로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1베드 2, 19; 4, 13-14)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함께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른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진(2베드 2, 15) 이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 하며, (2베드 2, 1)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2베드 3, 3)

이들의 잘못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을 유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방탕한 행실로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2베드 2, 2-3)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 영지주의자들이 비슷한 비난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인하고 육신의 부활과 재림마저 무의미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며, 방탕한 생활로 교부들의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 후서 저자는 거짓 교사들이 유포하는 그릇된 믿음에 맞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 이니, (2베드 3, 10)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2베드 3, 11-14)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 오고 셋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말씀에 귀 기울이라(2베드 1, 19)는 사도의 말이 새삼 새롭게 다가옵니다.

송혜경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12월 14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유요셉(일왕)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권베드로(태운)	권바실리오(영현)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은열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정은열	원점마
	생	강루시아(수영)	찬미성가대
	생	이골롬바(정연)	찬미성가대
	생	윤루시아(윤선)	윤루카(성진)
	생	송미카엘	송아가다
	생	송데레사	송아가다
	생	차루시아(아름)	차리디아
12월 16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12월 17일 수	생	김다윗(승우)생일	익명
12월 18일 목	생	본당신부님	전수산나
12월 19일 금	생	이루시아(영문)생일	김엘리사벳
12월 20일 토	생	유이냐시오 생일	전수산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100	185	27	268
헌 금	\$556	\$1,237	\$12	\$1,805

< 교무금 > \$4,923

정경희(11-12) 김영순(12) 정화봉(1-12) 전문자(12)  
 남금지(12) 채용분(12) 임윤택(12) 민기정(12)  
 박인준(1-12) 장진혁(5-9) 김영길(11-12) 이병열(12)  
 최몽렬(12) 김현수(12) 정진희(12) 허동원(12)  
 김관숙(12) 이건용(12) 이명란(12) 최윤기(12)  
 구창희(12) 양우선(11-12) 박호영(12) 천종욱(12)  
 이규주(7-12) 이선희(12) 이인학(10-12)

< 성소후원금 > \$120

채용분(12) 임윤택(12) 정진희(12) 박호영(12)  
 이명란(12) 최윤기(12) 이선희(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대림초/꽃봉헌 >

임윤택 \$100 구혜순 \$50

< 2차 헌금 > \$701.25

~~~~ 오늘 간식은 고 이상준 스테파노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12월 24일(수)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 영세식이 있습니다.  
\* 영세자 : 오클랜드반 - 김영균  
캐스트로벨리데반 - 이은자  
월넛크릭반 - 박지선  
12월 25일(목) 오전 11시 성탄 미사  
12월 31일(수)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1월 1일(목)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입니다.\*  
\* 24일, 3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성탄 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판공성사 : 12월 18일(목)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 대림특강  
일시 : 12월 14일(오늘) 미사 중  
강사 : 조마오로 수녀님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성탄 잔치  
일시 : 12월 25일 11시 미사 후  
내용 : 개인이나 가정별 노래/장기자랑  
신청 : 각 반장님들께 신청해 주십시오.  
\* 경품추첨에 사용될 선물(\$20 상당)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성탄트리 밑에 놓아주세요.)  
\* 당일 판매하는 라플 판매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모임  
\* 또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14일(오늘)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결산서와 행사보고서 및 2015년도 예산서를 총무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이영길 안드레아 510-292-5815  
[ygandrew55@gmail.com](mailto:ygandrew55@gmail.com)

◆ 북가주 청소년 대회

일시: 2015년 1월 3일 오전 8:30 ~ 오후 7:30  
장소: 산호세 성당  
참가대상 : Youth(8~12학년) & Young Adults(나이제한 없음)  
참가비 : \$30  
참가신청 : <http://www.koreancatholicyouthday.org/>  
문의: 김민규 바오로 925-698-9270  
[minkyukim1027@gmail.com](mailto:minkyukim1027@gmail.com)  
\* 신청서와 참가비는 성당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장찬호 안드레아 510-357-5669

◆ 2014년도 약정하신 교무금과 그 외 약정하신 다른 봉헌금들을 연말 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물방 대림 20% Sale  
성물방에서 대림시기를 맞아 도서/성물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 근래의 도난 사고들로 인하여 오클랜드 경찰서와 회의 끝에 토/일요일에는 63가쪽 문을 폐쇄하고 62가쪽 문만을 열어놓기로 하였습니다. 출입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차 순회를 더 자주해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성당측에서는 현재 고용한 경호원의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50분  
- 탈렌트쇼 & 크리스마스 파티  
: 오늘 영어미사 후 대건회관 회의실

안국학교 소식

- 12월 13, 20, 27 : 겨울방학  
- 2015년 1월 3일 : 개학